주간 Top Picks 26.08.03

26.08.03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Daishin AI RESEARCH

핵심 요약

- AI 메모리·반도체 실적 가속, 밸류 양극화 뚜렷
- 방산·금융·통신은 가이던스 상향 랠리 지속
- 직전 예측 다수 과소추정, 방향성은 대체로 적중

코멘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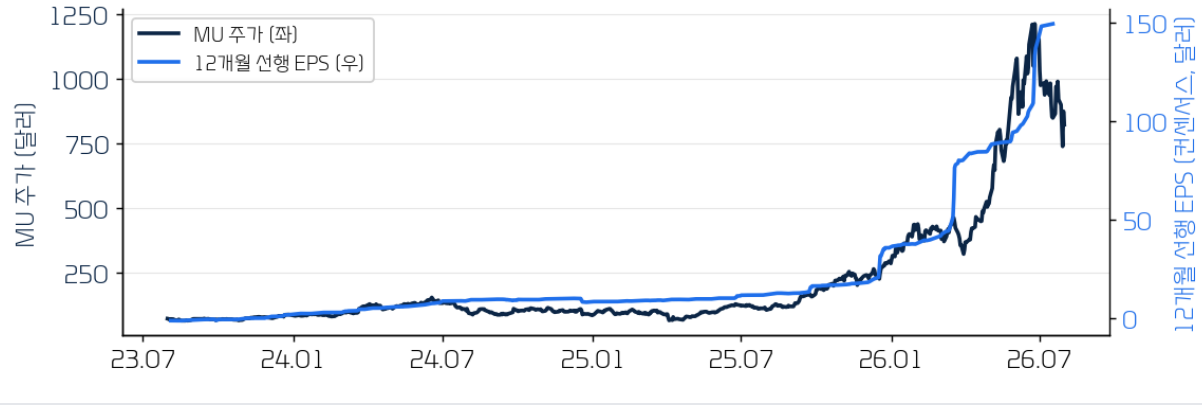
2 분기 실적 시즌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가속 국면에 있다는 점이다. 마이크론·엔비디아·브로드컴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숫자로 증명했고,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더 붙는 드문 장면을 보여줬다. 방산 두 종목(RTX·LMT)은 재비축 수요와 상업항공 정비 사이클이 겹치며 가이던스를 연속 상향하고 있고,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순이자수익 정상화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. 흥미로운 공통점은 상당수 종목에서 우리 모델의 직전 예측이 실적 가속 폭을 과소추정했다는 사실이다 — 방향은 맞혔지만 크기를 못 따라간 오차가 반복됐다. 밸류에이션은 극단적으로 갈린다. 사이클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마이크론·뉴몬트와, 이미 높은 기대가 반영된 브로드컴·엔비디아가 한 포트폴리오 안에 공존한다.

리스크 요인

이번 픽 대부분이 공유하는 리스크는 최근 몇 분기의 가속이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다. 마이크론의 매출총이익률 84.9%와 4 분기 가이던스 86%는 D 램·HBM 가격에 극도로 민감한 수치이고, 브로드컴 역시 3 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가 전분기 대비 310bp 낮은 74%로 예고돼 있어 시스템 단위 판매 확대의 마진 대가가 다음 분기 숫자로 드러날 차례다. 엔비디아와 RTX 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 둔화가 가이던스에 이미 내포돼 있고, 방산 두 종목은 상반기의 이례적으로 높은 유기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구조적으로 감속할 수밖에 없는 산술 구조다. 여기에 브로드컴의 12 개월 선행 PER 38 배대, 엔비디아의 92% 데이터센터 매출 편중처럼 소수 대형 고객·소수 사업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종목들은 하이퍼스케일러 설비투자 결정 하나에 실적 경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.

1. MU (반도체) — 확신도 높음

MU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마이크론은 D 램·낸드 메모리를 만드는 반도체 회사로,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전 산업으로 번지며 실적이 구조적으로 재평가되는 국면에 있다. FY26 3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4.5 배로 뛰었고 네 개 사업부 모두 250~650%대 성장을 기록했다 — 데이터센터 한 곳의 쏠림이 아니라 모바일까지 포함한 전방위 확산이라는 점이 이번 사이클의 특이점이다. 직전 분기(FY26 3 분기) 우리 모델 예측은 방향성은 맞혔으나 가속 폭을 크게 과소추정해 실제 매출·이익이 예측치를 웃돌았는데, 이는 시장 컨센서스 전반의 오차이기도 했다. 12 개월 선행 PER 이 9 배대로 섹터 중간값의 절반 이하인데, 이는 시장이 이익의 사이클 정점 통과 리스크를 이미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. $22B 규모 전략적 고객 계약을 확보하며 사이클형 기업에서 장기계약 기반 기업으로 스토리를 바꾸려는 시도가 이번 분기의 새로운 축이다.

투자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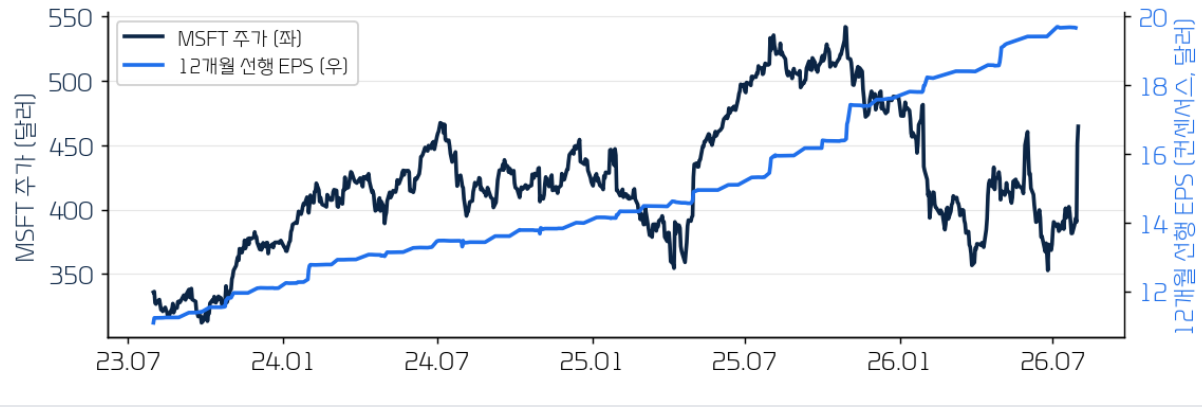
- 전략적 고객 계약 $22B 으로 현금 예치금·재무 약정을 확보해 실적 변동성을 낮추려는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이다.
- HBM4 가 이미 양산 출하 중이고 HBM4E 는 2027 년 양산이 예정돼 2 년 이상 제품 로드맵 가시성이 확보됐다.
- 조정 잉여현금흐름 $18.3B, 순현금 $24.5B 로 재무구조가 사실상 무차입 상태에 근접했다.

모니터링

- 매출총이익률 84.9%(4 분기 가이던스 86%)는 D 램·HBM 가격에 민감한 수치로, 공급이 늘면 빠르게 되돌아갈 수 있다.
- 매출채권이 전분기 대비 79% 급증해 분기 매출의 75% 수준에 달한 점은 수금 지연이나 채널 재고 부담의 조기 신호일 수 있다.

2. MSFT (소프트웨어) — 확신도 중간

MSFT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·오피스와 클라우드(애저)를 축으로 하는 빅테크로, AI 코파일럿 유료 전환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구간이다. FY26 4 분기 애저 성장률은 전년 대비 43%로 직전 분기 40%에서 오히려 더 붙었고, M365 코파일럿 유료 시트는 전분기 대비 50% 늘어난 3,000 만 개에 도달했다. 직전 분기 우리 모델 예측은 애저 가속 속도를 과소추정해 실제 매출이 예측 상단을 $2.5B 웃돌았지만, 방향성 진단 자체는 적중했다. 12 개월 선행 PER 21.2 배는 5 년 평균 대비 뚜렷한 할인 구간이라 컨센서스 상향 사이클이 이어질 경우 밸류에이션 재평가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나, 총이익률이 7 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이 성장의 대가를 보여준다.

투자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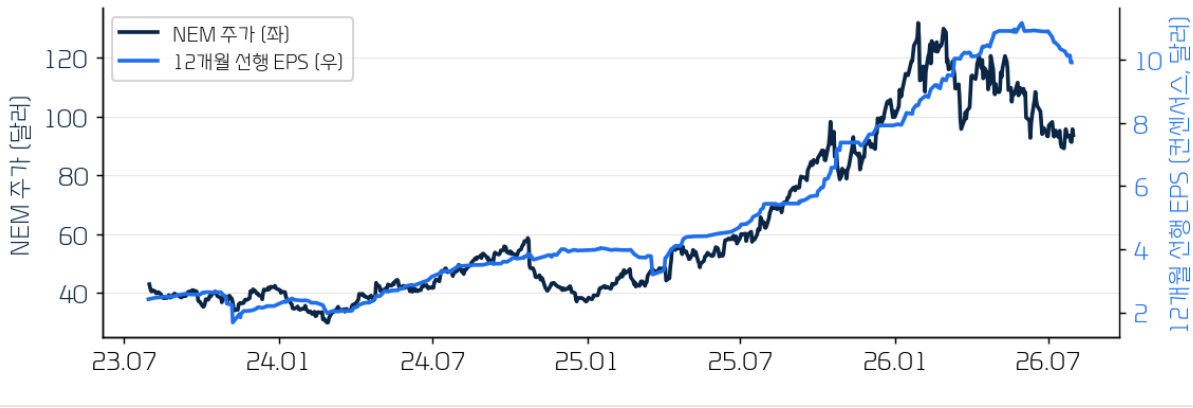
- 애저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$100B 을 넘었고, 잔여이행의무(cRPO)는 84% 늘어난 $678B 로 6 분기 연속 확장돼 FY27~FY28 매출 가시성을 뒷받침한다.
- FY27 두 자릿수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공식화해 다년도 성장 프레임을 재확인했다.
- FY26 4 분기 영업현금흐름이 30% 늘어난 $55.4B 로,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도 핵심 현금창출력이 유지되고 있다.

모니터링

- 매출총이익률 67.2%가 7 분기 연속 하락 중이고, FY27 1 분기 설비투자가 $50B 을 넘길 것으로 예고돼 잉여현금흐름 희석 가능성이 있다.
- 잔여이행의무 내 오픈 AI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파트너십 재구조화 협상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.

3. NEM (금광업) — 확신도 높음

NEM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뉴몬트는 세계 최대 금 생산업체 중 하나로, 금 가격 상승과 자체 비용 절감이 맞물려 현금창출력이 크게 개선된 구간에 있다. FY26 2 분기 조정 EPS $2.10 으로 6 분기 연속 컨센서스를 웃돌았고 잉여현금흐름은 전년 대비 29% 늘었다. 직전 분기 예측은 실제 실적과 대체로 일치했다(예상 부합) — 핵심 가정이었던 금 가격 $4,200 선 상회와 카디아 광산의 2 분기 말 정상 가동이 모두 실현되며 모델 신뢰도가 확인된 사례다. 12 개월 선행 PER 9.5 배는 5 년 평균 대비 41% 할인된 수준인데, 이는 금 가격이 반전될 경우 이익 레버리지가 역방향으로도 크게 작동하는 구조를 시장이 미리 할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, 최근 3 개월 주가가 21.5% 빠진 점에서도 이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.

투자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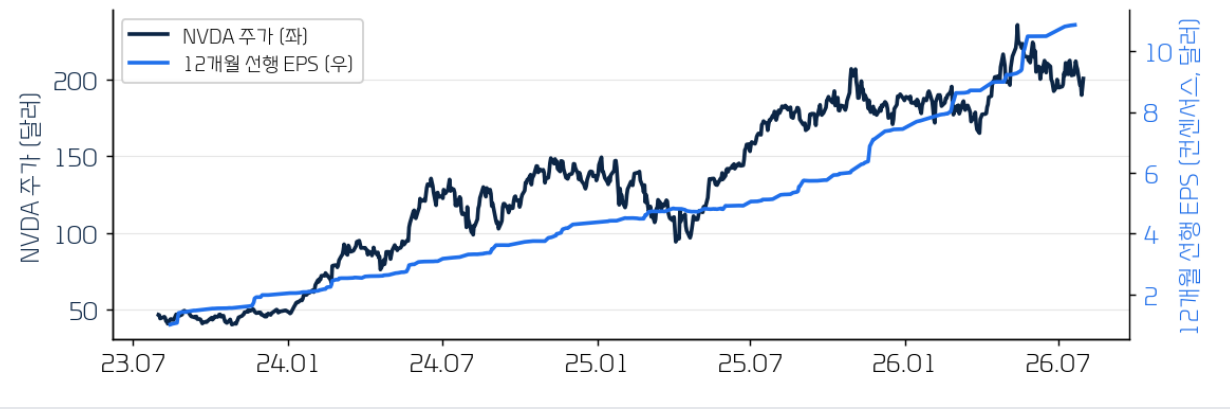
- 2024 년 2 월 이후 발행주식의 약 9%를 소각했고 $6B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중 $4.3B 이 남아 있어 자본환원 강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.
- FY26 2 분기 잉여현금흐름 $2,205M 은 상반기 누적 기준 이미 FY25 연간의 73%에 달해, 경영진 스스로 '사상 최대 2 분기'라 평가했다.
- 생산 저점이 1~2 분기(각 1,300koz·1,293koz)에 이미 지나갔고 하반기에 생산량의 51%가 집중돼 있다.

모니터링

- 2 분기 부산물 기준 전 유지원가 $1,621/oz 는 1 분기 $1,029(일회성 호재 반영)에서 정상화된 수치이며, 연간 가이던스는 $1,680 으로 경영진이 3 분기 추가 상승을 이미 예고했다.
- 금 실현가가 1 분기 $4,900 에서 2 분기 $4,414 로 떨어지자 매출과 잉여현금흐름이 각각 16%, 30% 급감한 점에서 금 가격 하락 시 레버리지가 양방향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다.

4. NVDA (반도체) — 확신도 중간

NVDA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엔비디아는 AI 연산용 그래픽처리장치(GPU)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는 반도체 회사로, 데이터센터 매출이 9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성장을 이어가는 드문 기록을 세우고 있다. FY27 1 분기 매출은 85% 늘어난 $81.6B, 데이터센터는 92% 늘어난 $75.2B 을 기록했고 2 분기 가이던스 $91.0B 은 컨센서스를 4.2% 웃돈다. 직전 분기 매출 예측은 범위 상단에서 적중했으나, EPS 는 영업 레버리지 강도를 과소평가해 실제치가 예측을 주당 $0.17 웃돌았다. 데이터센터 비중이 92.1%까지 심화된 점, 그리고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가이던스 기준 11.5%로 둔화되는 점을 감안해 확신도는 중간으로 둔다.

투자 포인트

- 데이터센터 내 네트워킹 매출이 199% 늘어 컴퓨트(77%)보다 빠르게 성장, 엔비디아 단일 스택으로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.
- FY27 1 분기 잉여현금흐름이 전분기 대비 2.2 배인 $48.6B 으로 늘었고, 설비투자는 $1.8B 에 그쳐 자본 부담이 크지 않은 구조다.
- $80B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 승인과 분기 배당 25 배 인상($0.01→$0.25)으로 총 매입 여력이 $118.5B 에 달한다.

모니터링

- 데이터센터 비중이 92.1%까지 커져 실적이 소수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결정에 사실상 종속돼 있다.
- 총 공급 약정이 $1,450 억, 재고는 전분기 대비 21% 늘어난 $25.8B 으로, 수요가 둔화될 경우 재고 부담이 빠르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다.

5. RTX (항공우주·방산) — 확신도 중간

RTX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RTX 는 군용 미사일·방공체계(레이시온)와 항공기 엔진·부품(프랫앤휘트니, 콜린스)을 함께 보유한 항공우주·방산 대기업으로, 방산 재비축 수요와 상업항공 정비 사이클이 동시에 실적을 밀어올리고 있다. FY26 2 분기 유기적 성장률은 16%로 1 분기 10%에서 더 붙었고, 조정 EPS $1.89 는 12 분기 연속 컨센서스를 웃돌았다. 직전 분기 우리 모델은 방산·상업항공 두 축의 가속 강도를 과소추정해 실제 매출과 EPS 가 예측 상단을 각각 6.5%, 8.6% 웃돌았다. 수주잔고가 22% 늘어난 $289B 으로 다년 가시성을 담보하지만, 12 개월 선행 PER 26.8 배가 5 년 평균 대비 33% 높은 프리미엄 구간이라 하반기 성장률 감속 폭이 앞으로 멀티플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보인다.

투자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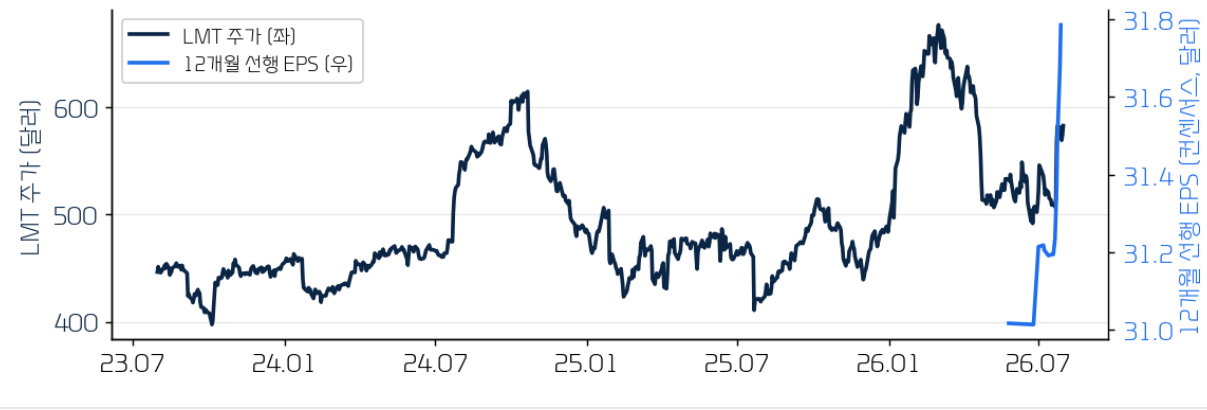
- 레이시온 매출이 18% 늘며 시계열 사상 최고를 기록, 패트리어트·스탠더드미사일·암람 물량 확대가 조정 매출이익률을 100bp 끌어올렸다.
- 백로그 $289B 이 상업(약 $170B)과 방산(약 $119B)에 고르게 분산돼 있어 특정 플랫폼 리스크가 낮다.
- FY26 가이던스가 5 분기 연속 상향돼 매출·EPS·잉여현금흐름 전 항목에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.

모니터링

- 상반기 유기적 성장률(10%, 16%)이 연간 가이던스 8~9%를 크게 웃돌아 하반기 3~5%대로의 감속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.
- 프랫앤휘트니 상업 장비 매출이 8% 감소하며 대형 엔진 믹스 역풍이 이어지고 있고, 경영진도 이 흐름이 수 분기 더 지속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.

6. LMT (방위산업) — 확신도 중간

LMT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록히드마틴은 F-35 전투기와 패트리어트·타드(THAAD) 방공체계를 만드는 세계 최대 방산업체로, 10 개 분기 동안 유지해온 중립적 견해를 이번에 강세로 상향한 종목이다. 1 분기에 지적됐던 사업부문 마진 부진, 잉여현금흐름 적자, 미사일·화력통제(MFC) 사업부 역성장이 한 분기 만에 모두 반전됐다 — 마진 10.78%, 잉여현금흐름 $2,917M, MFC 매출 9% 성장으로 돌아섰다. 직전 분기 우리 모델은 컨센서스가 가이던스 상단에 쏠려 있다고 본 방향 판단이 틀려, 실제 매출과 EPS 가 예측 상단을 각각 2.9%, 5.9% 웃돌았다. FY26 가이던스가 매출·EPS·잉여현금흐름·영업이익 전 항목에서 상향되면서 컨센서스 대비 위치가 4 월 전 항목 하회에서 7 월 상회로 뒤집힌 점이 이번 상향의 핵심 근거다.

투자 포인트

- MFC 매출이 19% 늘어난 $4,101M 으로 패트리어트·타드 램프업이 본격화됐고, 사업부 마진 14.5%로 포트폴리오 내 최고 수준이다.
- 수주잔고가 $230B 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, 7 월 30 일 부여된 $58.6B 규모 패트리어트 계약은 6 월 말 마감 잔고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.
- 잉여현금흐름이 1 분기 -$291M 에서 2 분기 $2,917M 으로 전환됐고, 하반기 요구치는 전년 동기 실적을 크게 밑돌아 부담이 크지 않다.

모니터링

- 설비투자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됐는데, 이것이 지출 효율화인지 FY27 로의 이연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.
- 자사주 매입이 1·2 분기 연속 0 으로 집계돼, 재량적 주주환원 재개 여부를 다음 분기에 확인해야 한다.

7. BAC (금융) — 확신도 중간

BAC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 4 대 은행 중 하나로, 순이자수익 저점을 통과한 이후 대형 은행 가운데 가장 꾸준한 이익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. FY26 2 분기 EPS 는 34% 늘어난 $1.21, 매출은 15% 늘어난 $31.6B 으로 순이자수익·트레이딩·자산관리·투자은행 네 축이 동시에 기여했다. 효율성비율이 59%로 떨어지며 경영진의 장기 목표치인 60%를 처음으로 밑돌았고, 재무담당임원이 순이자수익 성장률 6~8% 범위의 상단을 직접 지목하며 향후 경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. 12 개월 선행 PER 12.4 배는 섹터 중간값보다는 낮지만 5 년 평균 대비로는 오히려 11% 가량 높은 수준이라, 주가 멀티플 확장보다는 이익 개선이 주가 상승을 이끄는 구간으로 판단한다.

투자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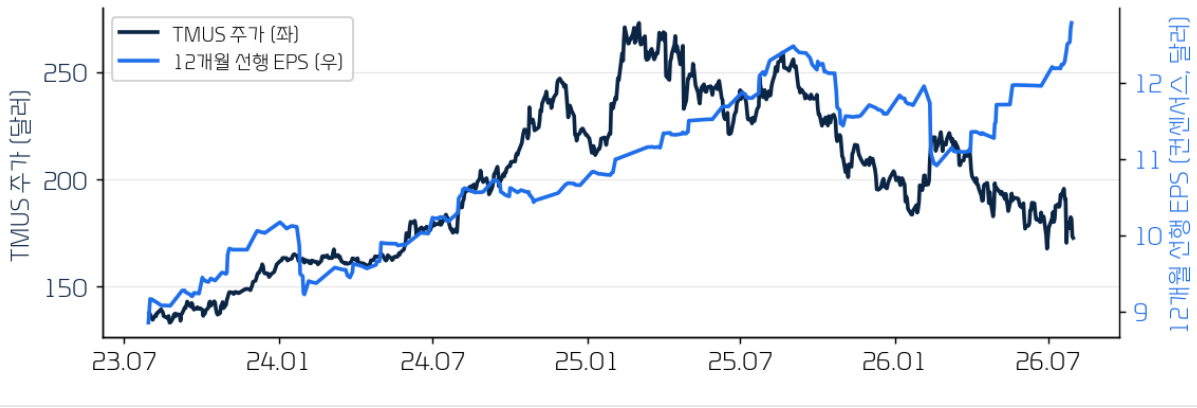
- 과세등가 기준 순이자수익이 9% 늘어난 $16.2B 으로, 정상화된 수익률 곡선과 9 분기 연속 늘어난 대출, 고정금리 자산 재가격이 동시에 작용했다.
- 글로벌마켓 매출이 34% 늘어난 $8.0B, 그중 주식 부문은 70% 늘어난 $3.6B 으로 자본시장 부문의 체급이 뚜렷하게 커졌다.
- 매출 증가율(15%)이 비용 증가율(8%)을 크게 웃돌며 운영레버리지 6.6%포인트를 기록, 효율성 개선이 숫자로 확인됐다.

모니터링

-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순이자수익에서 나오는 구조라, 금리가 100bp 인하될 경우 순이자수익이 약 $2.2B 줄어드는 민감도를 지닌다.
- 신용카드 위험조정마진이 여러 분기째 하락하고 있어(7.1%→6.7%→6.5%) 소비자 신용 건전성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.

8. TMUS (통신) — 확신도 중간

TMUS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T 모바일은 미국 3 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로, US 셀룰러 인수 통합 비용 부담이 정상화되며 마진이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. FY26 2 분기 EPS $2.99 는 컨센서스를 15.4% 웃돌았고 영업이익률은 24.1%로 1 분기 21.9%에서 220bp 반등했다. 직전 분기 우리 모델은 장비 매출 약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매출 예측이 실제 실적을 웃돌았던 반면(과대추정), EPS 는 마진 반등 속도를 과소추정해 실제가 예측을 상회하는 등 방향이 엇갈렸다. 12 개월 선행 PER 15.3 배는 5 년 평균 대비 31% 할인된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지만, 후불 가입자 순증이 전년 대비 13% 줄고 해지율이 소폭 오른 점은 마진 개선 스토리와 별개로 새로 지켜봐야 할 균열이다.

투자 포인트

- 잉여현금흐름 가이던스를 $18,400~18,800M 으로 상향했는데, 이는 6 년간 반복돼온 보수적 설정 후 점진 상향 패턴의 연장선이다.
- 핵심 조정 상각전영업이익이 11.7% 늘어난 $9,537M 으로 분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.
- 후불 서비스 매출이 12.6% 늘어난 $15,853M 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.

모니터링

- 후불 순증이 전년 대비 13% 줄어든 277K 에 그쳤고, 3 분기 가이던스도 약 250K 로 추가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.
- 후불 해지율이 0.92%에서 0.99%로 올라, 경쟁 심화나 가격 인상의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.

9. AVGO (반도체) — 확신도 중간

AVGO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브로드컴은 AI 맞춤형 반도체(ASIC)와 네트워킹 칩,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함께 보유한 반도체 회사로, 고객사별 AI 반도체 수요가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구간에 있다. FY26 2 분기 AI 반도체 매출은 143% 늘어난 $10,800M 으로 반도체 세그먼트의 72%를 차지했고, 3 분기 가이던스 $29,400M 은 전분기 대비 $7,200M 이 늘어나는 점프를 내포한다. 메타 3 기가와트, 앤스로픽 5 기가와트, 오픈 AI 1.3 기가와트 등 고객별 약정과 20 기가와트 규모 XPU 플랫폼(XPV, $35B)이 공개되며 수요 가시성이 2028 년까지 확장됐다. 다만 12 개월 선행 PER 38.6 배는 5 년 평균 대비 큰 프리미엄이고, 3 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가 전분기 대비 310bp 낮은 74%로 예고돼 있어 성장과 수익성이 교환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판단해 확신도는 중간으로 둔다.

투자 포인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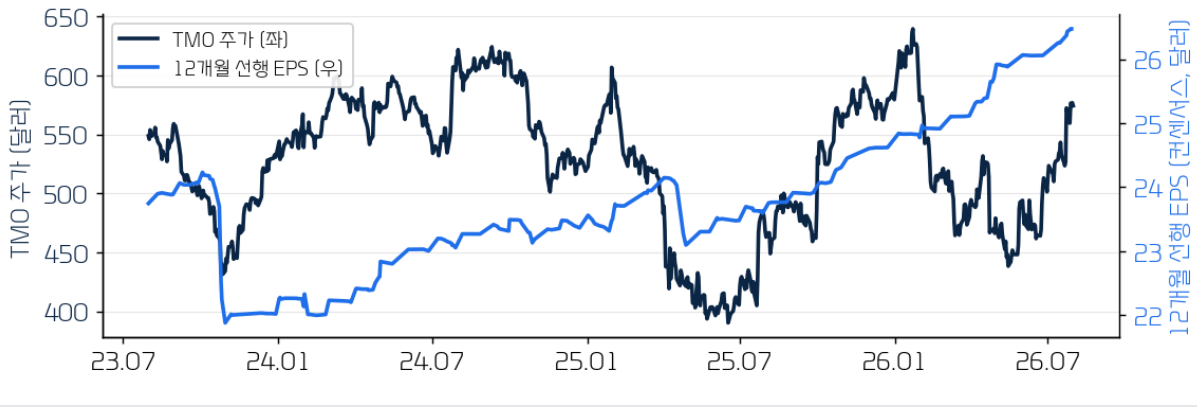
- 3 분기 AI 반도체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200% 이상 늘어난 $16,000M 으로, FY26 연간 약 $56B 목표를 향한 경로가 수치상 정합적이다.
- 고객별 기가와트 약정이 구체화되며 수주잔고가 $30B 을 넘어섰고, 수요 가시성이 2028 년까지 확장됐다.
- FY26 2 분기 잉여현금흐름이 매출의 46%에 해당하는 $10,300M 을 기록, 설비투자는 매출의 1% 수준에 그쳐 자본 부담이 가볍다.

모니터링

- 3 분기 매출총이익률 가이던스 약 74%는 2 분기 77.1%에서 310bp 낮아진 수치로, 시스템·랙 단위 판매 확대에 따른 믹스 효과이지 이번 분기 마진을 대표값으로 보기는 어렵다.
- 재고 회전일수가 68 일에서 86 일로 늘어난 점은, 3 분기 매출 점프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수요 예측 오류로 역전될 수 있는 신호다.

10. TMO (생명과학·헬스케어) — 확신도 중간

TMO 주가·12 개월 선행 EPS



자료: LSEG (주가 · I/B/E/S 12 개월 선행 EPS 컨센서스) ·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코멘트

서모피셔사이언티픽은 실험 장비와 시약, 임상·바이오제약 위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명과학 도구 회사로, 1 분기 부진했던 유기적 성장을 한 분기 만에 되돌린 점이 이번 픽의 핵심이다. FY26 2 분기 매출은 보고 기준 10.5%, 유기 기준 5% 늘었고, 네 개 사업부가 모두 6% 이상 동시에 성장한 것은 시계열상 처음이다. 직전 분기 우리 모델은 유기 성장과 마진 확대를 과소추정해 실제 매출과 EPS 가 예측 상단을 각각 3.4%, 4.0% 웃돌았다. 상반기 잉여현금흐름이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$2,494M 으로 연간 가이던스 진척률 34~36%를 기록해, 과거 3 년 반복됐던 잉여현금흐름 미달 우려가 완화되는 방향이지만, 연간 가이던스 자체가 유기 성장 3~4% 레인지 상단 착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은 3 분기에 검증해야 할 과제다.

투자 포인트

- 생명과학솔루션(+12.6%), 실험용품·바이오제약서비스(+11.6%), 분석기기(+6.9%), 특수진단(+6.3%) 등 네 세그먼트가 동시에 성장했다.
- 조정 영업이익률이 90bp 오른 22.8%, 조정 영업이익 증가율(15.2%)이 매출 증가율을 웃돌아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하고 있다.
- 12 개월 선행 PER 21.8 배는 5 년 평균 23.2 배 대비 여전히 할인된 구간이다.

모니터링

- 연간 가이던스가 유기 성장 3~4% 레인지 상단 착지를 전제로 하는데, 2 분기의 5% 성장이 재현되지 않으면 되돌림 폭이 커질 수 있다.
- 분기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53% 늘어난 $450M 을 기록해, 연간 순 설비투자 가이던스 유지 시 잉여현금흐름에 하방 압력이 남아 있다.

다음 주 관찰 포인트

- 마이크로소프트 FY27 1 분기 설비투자 $50B 이상 집행 여부와 애저 가속 지속성 확인
- 엔비디아 FY27 2 분기 실적에서 가이던스 $91.0B 달성과 데이터센터 성장률 둔화 폭 점검
- 브로드컴 9 월 실적에서 3 분기 매출총이익률 74% 하락 폭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
- 9 월 17 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이 뱅크오브아메리카 순이자수익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 : 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